

“염불이 참선, 참선이 염불”



였고 관음 스님께서 94살에 입적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 있는 발원이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구하는 것이 불교인데, 염불삼매에 들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까지 편안해지니 더없이 좋은 수행법임을 강조했다.

아미타부처님의 본성은 무한한 빛이요 무한한 생명이다. 그 무한한 빛이 온갖 세상을 남김없이 두루 비추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라는 때에 타는 자는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 또한 아미타 부처님은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력 세계에 이르는 자는 죽음을 넘어선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흔히들 ‘나무아미타불’은 서방정토에 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원산 스님은 극락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현실에서 극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 했다.

작년 시월 보름에 입재하여 날마다 염불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원산 스님은 “염불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하였다. 참선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나 고요함과 같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 스님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우면 끝까지 해내고야 말기에 ‘만일염불회’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 또한 크다.

원산 스님은 통도사 바로 코앞에 초산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양산시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2000년부터 시작된 초산유원지 개발 반대 운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중도 포기했을 때 스님은 혼자서 쉼 수도 없는 공문과 진정서를 보내고

전국의 관계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런 보람이 있어 7년 만에 통도사와의 협의 없이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양산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았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영축산을 지키다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한 스님의 의지 앞에 양산시도 손을 든 것이다. 스님은 이것을 두고 그래도 밥값은 한 것이라면서 흐뭇해 하셨다. 스님의 변칙이는 선지가 느껴지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자기 몸뚱이만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 생각하면 자연도 아끼고 모든 것을 아끼게 됩니다. 우주가 내 집인데 쓰레기를 합부로 버려서 되겠어요? 우주가 내 집인데 몇 평 아파트인지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야기는 다시 염불선으로 되돌아왔다. 흔히들 화두참선은 자력신앙이요, 염불선은 타력신앙이라 한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다.

“만약 강을 건너고자 할 때 자력신앙이란 스스로 헤엄쳐서 건너는 것이라면 타력신앙이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어느 것이 쉬운가?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거나 자력이면 타력이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강을 쉽게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산 스님은 자력이면 타력이면 저 강을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선과 염불 중 어느 것이 더 수승하다는 그런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자성을 관조하기 때문에 자력신앙이면서 타력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염불은 하기도 쉬울뿐더러 쉽게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증생교화 방편으로 활용한다면 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염불 수행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선의 명상과 같으나 선보다는 훨씬 쉬운 수행법인지라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이 삼매를 이루는 데는 더욱 효과적일 수행임을 원산 스님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선이 불교계를 풍미할 때에도 염불 수행은 주된 수행법으로서 이어져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

원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 시름을 잊게 된다. 무애가를 부르면서 나무아미타불로 중생을 구제하였다는 원호 대사의 염불 또한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디선가 불어 온 한줄기 바람이 대숲을 흔들고 지나간다. 말라버린 연잎을 보듬어 안은 채 동면에 들어 간 연못을 한 바퀴 돌고서 산을 내려왔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원산 스님은 1964년 출가하여 1969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통도사, 법어사, 동화사 전문 강원 수탁. 극락선원,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7년여 수선 안거. 직지사 황악학림 졸업. 직지사 관음 대강백으로부터 전강. 직지사, 통도사 강주 역임.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 역임. 통도사 백련정사 무문관 3년 결사 정진. 2008년 ‘만일 염불회’ 창설. 현 통도사 백련정사 주석.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8> 천태종 상월 대조사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 스님은 중국 천태대사의 지관(止觀)정신과 고려 대각국사의 천태사상을 중흥한 대조사다. 소백산 골짜기에 조그마한 초옥을 짓고 주경야선(晝耕夜禪)으로 정진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을 수백 명 고치다보니 정법을 자칭하는 타 종단에서 사마외도(邪魔外道)라며 업신여김을 받았다. 마침내 정부에서까지 없애려 하던 것을 보고 중흥의 원력을 세운지 20년만에 ‘대한 불교 천태종’으로 인증되니, 스님의 수행경력으로 보면 거의 4반세기가 훨씬 넘어서 이루어진 쾌사이다.

필자가 구인사를 찾은 것은 1968년 법인 허가가 난 그 이듬해였으나, 4년 후 여름 안거 기간에 가서보니 수천명의 신도들이 좌우 건물에 뿔뿔이 들어 앉아 ‘관세음보살’을 염창하여 마치

에 이르러서는 구인사의 중흥불사와 종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다소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나 법문은 한 가지,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고, 묘법(妙法)은 무생(無生)이며, 연화(蓮花)는 무염(無染)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애해탈이며, 무한 생



구의 힘에 의해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의 결과로써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자체구현이다.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한 진리인가. 천태종에서는 따로 붓지를 뜨고 하우스를 벗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스스로 노력하여 자연 재래를 이기는 것이 마치 풀 나무가 눈서리 가운데서도 까딱 없이 잘 자라듯 자기 공부를 자기가 실천하므로 힘을 얻어 자신을 개척하되, 남의 힘을 이웃과 사회에 돌리면 그것이 곧 복지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곳곳에 연꽃이 되어 전국 방방 곳곳에 도량을 세운 곳이 수백 곳이고, 집집마다 자기 법당에서 가족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기아 돕기, 의료봉사, 무지퇴치운동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이재민 돕기, 6·25동란으로 거의 파괴되어 매몰된 구 사지(寺址)를 발굴

“실상은 무상, 묘법은 무생, 연화는 무염” 강조

천상세계에서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특히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앉아 정진하였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비를 쓰고 앉아 기도하였다.

상월 조사는 머리도 뺨뺨 깎지 않고 옷도 두루마기식으로 간단히 만들어 입고, 일을 하실 때는 체면과 이면을 가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저 속에 무슨 도가 있겠나 생각되지만 막상 철야정진을 같이 해 본 사람이라면 ‘저렇게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사나?’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15세에 불교에 귀의하여 열반에 드실 때까지 큰 탈 없이 잘 지내셨다.

중생이 병이 들면 함께 병이 들고, 중생이 고통에 쌓여 있으면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 만년

명의 전제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常淸淨)하면 처처에 연화개(蓮花開)니라.”

이것은 스님께서 30년 동안 체험하신 수행의 결산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닫고, “신비하여라 부사의 해탈이여. 일체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단지 무명에 가리어 이를 볼 수 없도다.”

하였는데, 그 부사의해탈 경계는 모양이 없으므로 무상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온갖 법이 나타나고 있으니 묘법(妙法)이요. 그것은 생사거래에 관계가 없으므로 무생(無生)이다. 마치 진흙 속에 태어나 있으면서도 그에 물들지 않는 것 같이 처염상정(處染常淨)하므로 무염(無染)이다. 누구나 이 도리만 깨달으면 진속(眞俗) 양경에 걸림이 없게 되므로 무애해탈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

복구하는 중창불사사업은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수백만 신도의 신심과 원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상월 조사의 정신은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계승되고 있으나, 특히 종단의 의결기관을 주관하고 있던 박형철 회장님과 제2대 종정을 지내신 남대중 스님, 여러 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전운택 스님과 윤덕산에게 계승되어 크게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스님의 열반계승을 읊어본다.

“모든 부처님들도 출세한 일이 없고

또한 열반에 든 일도 없다. 죽고 나는 것이 본래 공적하여 찾다가 기우는 것이 마치 하늘에 뗏다 지는 달과 같다.”